

假 性 皮 疽

韓 映 愚

緒 言

主로 日本, 印度, 比律賓, 佛蘭西, 伊太利, 에질트, 南美 등에서 發生하며 散發的 發生을 볼 수 있고 夏節보다 冬節에 많이 發生하는 傾向이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들어온 時期는 文獻上으로 明白하지 않으나 1943~1944년에 發生한것이 前無後無한 것으로 된것같고 그 侵入經路는 當時의 滿洲地方인것으로 알고있다.

當時 이病의 治療는 絶望視되었기에 發見即時로 殺處分하는것으로 定해져있었다.

이病이 韓國에서 法定傳染病으로 制定된것도 日帝末葉의 일이었다.

發生 및 防疫史

世界的인 發生例는 資料가없어 分明치 않으나 日本에서의 發生狀況은 다음과같다.

年度別	發生數
1906	258
1907	435
1908	529
1909	191
1910	162
1911	36
1912	105
1913	34
1914	19
1915	10
1916	1
1917	3
1918	2
1919	3
1920	2
이렇게 漸次 줄어들다가	
1940	41

1941	48
1942	9
1943	2
1947	1

이렇게 1940年頃부터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고 다시 또 줄어들고있다.

即 이趨勢에서도 보는바와같이 이病을 發見即時로 徹底히 殺處分하기때문에 漸次減少되는 傾向에 있는듯하다.

우리나라에는 1943~1944年 頃에 當時의 京城府 淸涼里, 往十里等地에서 7~8頭(馬)發生한것이 처음이자 끝으로 現在는 終熄狀態에있다.

그當時는 國內馬가 大部分 軍用馬로 徵發됨에 따라 가까운地域이라는點과 廉價인 滿洲馬가 相當數 國內에 導入되어 馬車輸送事業에 쓰여지고 있었는데 上記 罹患馬는 바로 이것들中的 것이었다.

勿論 當時에도 所謂 鮮滿國境間에 所定의 動物檢疫機關이 없었던 것은 아니였으나 軍事的緊迫性이 極甚했던 日帝末葉의 일이고 더우기 植民地의 일이라 檢疫業務들이 相當히 허술했던틈을타서 滿洲地域에서 汚染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것이다.

當時 朝鮮總督府治下機構中 警務局衛生課와 各道警察部衛生課에서 年秋季一回 檢索業務를 遂行하고있었다.

即 육안으로 발견하여 可檢物鏡檢으로 이스트菌을 發見하는 方法이었다.

上記 發生馬는 當時의 京畿道警察部衛生課 關本라는 사람이 發見하여 全部殺處分하였다.

即 스트리키닌을 頭當 10cc 靜脈注射하여 죽이고 法에는 燒却함이 原則이나 當時의 油類難과 施設不備等으로 不得已埋沒하였다.

<筆者=前家畜衛生研究所長>